

## II. 주요 경제 현안

### 1. 油價,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 □ OPEC 減産 합의로 原油價 상승

지난해 아시아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해 석유 수출국들의 손실이 증대되자, OPEC을 포함한 15개 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부양을 목적으로 지난 23일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3% 수준인 하루 210만 배럴 감산에 합의. 이에 따라 97년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원유가도 10달러대에서 14~15달러로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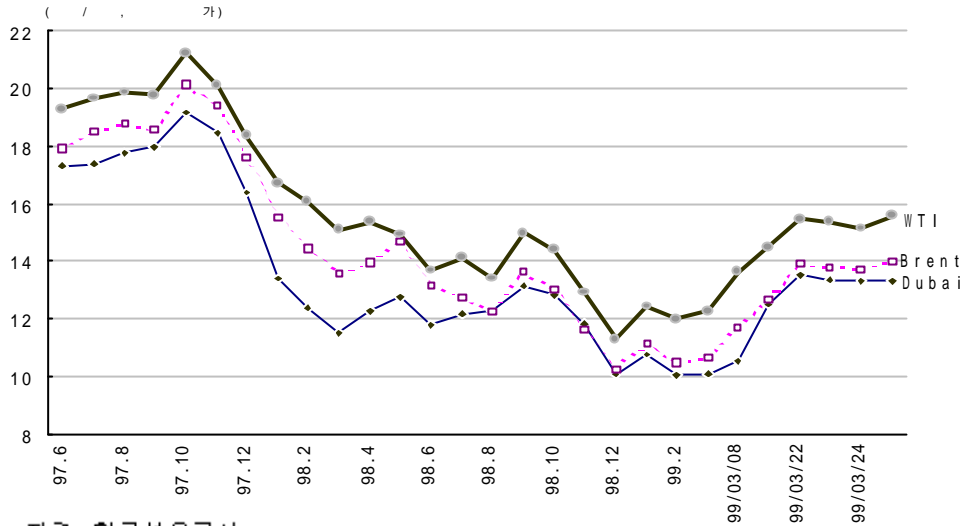
- **(합의 결과)** OPEC을 포함한 15개 산유국들은 지난 23일 油價 부양을 위한 하루 210만 4,000배럴 감산에 합의
  - 이 감산량은 전세계 원유 생산량인 하루 7,500만 배럴의 3% 수준으로 4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
  - 세계 원유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OPEC회원국들은 170만 배럴, 4개 非회원국들은 40만 배럴 감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58만 5,000배럴, 이란은 26만 4,000배럴, 非회원국이면서 세계2위 수출국인 노르웨이도 10만 배럴 감산
- **(배경)** 지난해 국제 유가가 86년 대폭락 사태 이래 최저치로 하락,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OPEC의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유가 회복 요구가 증대
  - 98년 OPEC의 바스켓평균유가는 12.28달러/배럴로 전년보다 34.3% 폭락. 그에 따라 석유 수출 수익도 33.6% 감소한 1,073억 달러로 89년 이래 최저치 기록<sup>1)</sup>
  - 99년에 들어서도 Dubai유가는 한자리수대로 폭락했으며 Brent유가는 10달러선을 겨우 유지. WTI 또한 11~13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음<sup>2)</sup>
  - 한편,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온 非OPEC의 산유량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축소 및 限界 유전의 조업 중단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OPEC

1) 73년 기준으로 환산한 실질가격도 3.48달러/배럴로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73년(3.05달러/bbl) 이래 최저치를 기록(Arab Oil & Gas,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서 재인용)

2) 98년과 99년 초반의 유가 폭락은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의 온화한 기후와 이라크의 석유 시장 재진입,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요 축소와 함께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술 진보에 따른 원유 개발 비용의 하락(81년 20달러/배럴→97년 5달러/배럴)에 힘입어 증대되었던 생산 물량이 시장에 유입된 결과임.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도 지적했듯이, 90년대 1.5~2.0%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던 아시아 지역 석유 수요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년에 비해 50만 배럴/일 감소

의 영향력이 강화된 점도 합의에 이르게 한 배경으로 작용

<국제 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 (영향) 1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원유가는 감산 전망이 제기된 이후 연초 10 달러대에서 14~15달러 이상으로 급상승
  - 3월 초반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5일 현재 WTI유 현물이 배럴당 15.59 달러, Brent유는 14.04달러, Dubai유는 13.32달러 기록
  - 그에 따라 최종재 가격도 상승하여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4개월만에 꺾런당 1달러 수준으로 복귀

□ 향후 가격 결정 요인 및 전망

유가가 큰폭 상승할 경우 베네주엘라나 러시아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산유국이 감산 합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고비용의 원유생산 설비가 재가동되거나 그동안 억제되었던 비산유국이 유도될 수 있음. 선진국 등의 원유 재고가 아직 과다한 수준이고 아시아나 남미의 수요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원유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15~16달러선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3분기 정도 지난 이후 올해 연말까지는 WTI유 기준으로 14달러대에 머물 전망

- 감산 합의의 이행 여부

- 단기적으로 감산 합의분의 80% 이상이 이행되는 경우 현재의 공급 과잉과 비수

기의 수요 감소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어, 2/4분기 유가가 WTI 기준으로 15~16달러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 그러나, 작년 두차례 합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유국은 침체된 경제 여건을 조속히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감산 목표를 초과하는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나 러시아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베네주엘라의 경우, 재정 적자 심화와 사회불안 악화 우려로 노조 등은 감산에 반대하고 있음

#### - 새로운 공급원의 참여

-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생산 비용이 높아서 가동이 중지되었던 원유 생산 설비가 가동될 가능성(특히 非OPEC국가)이 높아지며 세계 원유 시장은 결국 과잉 공급 상태로 재돌입할 수 있음<sup>3)</sup>
- 한편 쿠웨이트 등 일부 OPEC 국가가 외국 석유회사들에게 유전 개발을 개방을 통해 원유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세계 원유 재고

- 1월말 현재 EU 16개국의 원유 재고는 4억 6,550만 배럴로 98년 1월 수준과 비교 시 무려 4,430만 배럴이나 상회하는 수준(12월보다도 1,690만 배럴 많음)임
-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원유 재고는 1월말 현재 3억 3,280만 배럴로 1년 전에 비해 1,190만 배럴 많음(12월 대비 1,100만 배럴 초과)
- 이와 같은 과다한 원유 재고는 가격 상승 저지 요인으로 작용

#### - 수요 회복 가능성 여부

- 선진국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남미 등 개도국권의 경제위기 여파로 원유 수요 회복세 역시 한계에 직면할 것임(특히 거대 시장인 중국이나 불황 상태인 일본의 수요가 정체)

3) 반면 IEA(장기에너지전망, World Energy Outlook to 2020) 등은 비OPEC의 증산 여력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OPEC의 시대가 재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 특히 2020년에 이르면 중동 지역 산유량이 다른 지역의 산유량을 크게 상회하고, 베네수엘라를 포함할 경우 OPEC 산유량은 2010년경에 비OPEC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98년 세계 석유 수요는 아시아의 극심한 부진(전년보다 하루 40만 배럴 감소)으로 하루 7,390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7,500만 배럴에 그칠 전망
- 아울러, 석유제품시장이 아직도 약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精製마진 하락으로 원유 수요 부진이 가속화될 수도 있음

**<IEA 세계석유수급 전망>**

(단위:백만b/d)

구 분	'98					'99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OECD	47.1	45.0	46.4	47.9	46.6	47.9	45.7	47.0	48.6	47.3
	非OECD	27.6	27.3	26.9	27.4	27.3	27.8	27.6	27.4	28.2	27.8
	계	74.7	72.3	73.4	75.3	73.9	75.6	73.3	74.4	76.9	75.0
공급	非OPEC	45.2	44.5	44.0	44.6	44.6	45.0	44.8	44.8	45.4	45.0
	OPEC원유	28.5	28.2	27.3	27.3	27.8					
	OPEC NGL*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계	76.5	75.6	74.2	74.9	75.3					
재고증가	+1.7	+3.3	+0.8	-0.5	+1.3						
對OPEC 원유수요	26.7	24.9	26.5	27.8	26.5	27.6	25.5	26.7	28.5	27.1	

\*Natural Gas Liquid

자료: IEA,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서 재인용

- **전망:** 3/4분기 이후 WTI유는 14달러, Brent유와 Dubai유는 13달러대에 머물 전망
- 주요 기관의 전망을 살펴보면, OPEC은 WTI기준 20달러대를 목표(특히 3, 4분기 상승)로 하고 있는데 CGES(Centre for Global Energy Studies)도 감산 합의가 지켜질 경우 올해말 최고 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일본 Nippon Oil社도 추가 감산 합의가 85~90% 준수되고 하반기 수요 회복시 연말에는 Dubai유가 기준으로 1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유가는 현재 14~15달러 내외에서 소폭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번 감산 합의가 가시화되는 2/4분기 전후에는 WTI유 기준으로 배럴당 15~16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소폭 재하락해 올해 연말 이전까지는 원유가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박 병 킴 [bcpark@hri.co.kr](mailto:bcpark@hri.co.kr) ☎724-4048)